

명작 영화 촬영지로 떠나는 이색 '그림여행'



박성천 기자
추천하는 책

영화가 좋다 여행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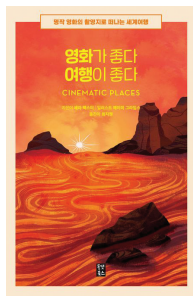
세라 백스터 지음, 최지원 옮김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는 캐나다의 장엄한 산속 미개척지에서 벌어지는 복수극을 다룬 영화다. 멕시코 출신 감독 알레한드로 곤잘레스 이나리투의 작품으로 광활한 자연에서 벌어지는 인간들의 핏빛 다툼은 주요 서사다.

북미 개척지에서 스피드하게 전개되는 복수극은 코끝까지 날카롭고 청량한 공기가 느껴질 정도다. 마치 얼음이 낀 강가에 들어간 것처럼 추위가 뱃속까지 스며드는 것 같다. 한마디로 풍경 그 자체가 영화의 분위기를 말해 준다.

많은 이들에게 회자되는 영화에는 매력적이고 인상적인 장소가 등장한다. 아름다운 풍경이 스크린에 비치면 자신도 모르게 그곳에 뛰어들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반면 참혹하고 무참한 전쟁이 벌어지는 장소에서는 극도의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다.

환상적이며 신비로운 세계를 표현한 영화는 상상의 나라를 펴게 한다. 영화 덕분에 관광산업이 호황을 누리



는 곳도 있다. '반지의 제왕' 시리즈가 촬영된 뉴질랜드를 비롯해 '비치'로 유명한 태국의 피피섬은 관광객들이 자주 찾는 명소다.

'500개의 길에 담긴 세계역사' 등을 펴낸 세라 백스터가 펴낸 '영화가 좋다 여행이 좋다'는 영화 촬영지를 소개한 책이다. '명작 영화의 촬영지로 떠나는 세계여행'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저자는 촬영지를 조명한다.

저자는 "영화의 배경이 되는 장소는 단순히 경치에 머무는 게 아니라, 주인공의 행동을 결정하고 플롯의 흐름에 관여하며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한다"며 "배경도 분위기도 다른 이 영화들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지역색을 잘 살린 작품들이라는 점"이라고 말한다.

책에는 아시아의 역동적인 대도시들을 비롯해 고풍스러운 유럽의 도시들이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외계행성의 느낌을 물씬 풍기는 사하라사막까지 다채로운 풍경과 마주할 수 있다.

장르도 다양하며, 천차만별이다. 무서움과 공포를 자아내는 호러물, 예술성을 갖췄지만 극도의 긴장을 유발하는 스릴러, 고통을 극복하고 승리의 감격을 안겨주는 스포츠 영화, 미래 세계를 그린 SF도 있다. 독특한 로맨틱 코미디, 애로틱한 시대극, 주인공 길을 따라 걷는 로드무비도 포함돼 있다.

앞서 언급한 '레버넌트: 죽음에서 돌아온 자'는 캐나다 앨버타에서 촬영됐다. 작품 속 배경인 미국의 몬태나와 사우스다코타 주는 효과와 재미를 위해 실제 공간이 아

닌 다른 곳에서 촬영됐다.

저자에 따르면 실제 장소를 그대로 옮겨온 영화도 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는 실존 인물 T. E. 로렌스가 활동했던 요르단 사막에서 주요 부분을 찍었다.

잉마르 베리만의 오래 전 영화 '페르소나'는 발트해에 있는 스웨덴의 황량한 섬에서 펼쳐진다. 감독 겸 작가인 잉마르 베리만은 인격의 분열을 탐구한 실험극을 만들었다.

연극배우인 엘리자베스 보글러는 어느 날 공연 중 갑자기 침묵해버린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그녀가 여전히 말문을 열지 않자 의사는 젊은 간호사를 불러 자신의 여를 별장으로 보낸다. 두 여성이 당도한 섬은 외딴 벽지인 데다 날씨도 끔찍하다. 이후 두 여자는 격렬한 다툼과 화해를 반복한다.

또한 마틴 맥도나 감독의 '킬러들의 도시'는 벨기에의 도시 브뤼헤를 배경으로 한 영화다. 동화 속 풍경을 닮았지만 이곳에서 지옥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내용은 사뭇 역설적이다. 저자는 '우아한 풍경을 감상하다가 쭈뼛 머리카락이 서게 되는 아름다운 도시'라고 평한다.

이밖에도 스페인의 참담한 역사가 어른거리는 산맥 등을 배경으로 그린 영화 '판의 미로'는 벨기에와 과다라 마산맥이 주요 촬영지였으며 1993년 작 '피아노'는 뉴질랜드의 넓고 황량한 모래톱 카라카레 해변이 주요 무대였다. 폴 킨의 '패딩턴'은 화려한 야경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런던을 배경으로 제작됐다.

책 중간중간에 삽입된 그림은 런던에서 활동하는 삽화가 에이미 그라임스의 작품이다. 밝고 굵은 그림체를 보는 맛도 쏠쏠하다.

〈울긋북스·1만95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폴 킨의 '패딩턴'은 화려한 야경과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런던을 배경으로 제작된 영화다. (울긋북스 제공)

IT 트렌드 2024

김지현 지음

IT 기술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지 오래다. 우리 삶은 IT를 벗어나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직간접적인 연관을 맺고 있다. 2024년 IT 기술과 서비스 패러다임은 어떻게 바뀔지, 무엇을 주목해야 할지 분석한 책이 나왔다.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이자 ICT 분야 기술 전문가 김지현이 펴낸 'IT 트렌드 2024'는 누구나 알아야 할 테크 트렌드를 분석했다.

2010년대 들어 모바일 시장이 들어서면서 한국형 커뮤니티 서비스는 주목을 끌지 못했다.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밴드, 스토리, 제페토 등을 출시했지만 세계적인 서비스로 발돋움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2024년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지 지켜볼 일이다.

업무 깊숙이 들어온 동반자 생성형 AI는 점차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 프롬프트를 통한 보안 유출 문제는 유의해야 할 점이다.

21세기 원유로 불리는 데이터는 IT에서 중요한 토대가 된다. 기업은 여러 데이터를 수집해 상품 개발이나 서비스 개선, 고객 만족 등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업의 사업 혁신에 중요한 부분이다.

공장에서 일상으로 들어온 로봇, 국경이 무너지는 핀테크, 이모터에서 아바타 생태계로 전환되고 있는 아바타 등 눈여겨볼 부분이다. 또한 넷플릭스 성장 이면에는 토종 OTT 기업의 위기가 자리하고 있는데 인기 오리지널 콘텐츠의 해외 판권 확대 등 사업 다각화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밖에 재편되는 이커머스의 춘추전국시대, 재도약이 필요한 기업의 디지털 혁신, 초거대 AI개발에서 획기적인 비즈니스의 기회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는 양자 컴퓨팅 관련 사업 부분도 빠르게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크레타·2만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브래드버리, 몰입하는 글쓰기

레이 브래드버리 지음·김보은 옮김

SF 문학의 거장 레이 브래드버리는 생전에 '글쓰기는 생존'이라고 이야기했다. 열두 살 때부터 매일 1000단어씩 글을 썼고,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침대에서 달려나와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들을 모조리 써 내려갔다.

'화씨 451', '화성 연대기', '민들레 와인' 등으로 국내에서 잘 알려진 레이 브래드버리의 독창적인 글쓰기를 엿볼 수 있는 '브래드버리, 몰입하는 글쓰기'가 출간됐다. 저자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써 내려간 글쓰기에 관한 에세이들을 한 권으로 엮었다. 수많은 작품의 원천이 되는 우물은 어디서 왔는지, 작품의 창작 과정과 비하인드 스토리가 책 속에 담겼다.

'화씨 451, 동전 넣고 쓴 소설' (1982) 편에서는 작품의 탄생 배경이 드러난다. 1950년 봄, 10센트로 30분 동안 타자기를 빌려 쓸 수 있는 UCLA 도서관 지하 타이핑 룸을 찾았고 9일만에 9달러 80센트를 지불하면서 나중에 '화씨 451' (황금가지, 2009)이 된 '방화수'의 첫 번째 초고를 완성했다.

그로부터 32년이 지난 어느 날 소설 속 모든 인물들을 불러내 말을 걸었다. 그들은 새로운 장면들을 썼고 알려지지 않은 자신들의 영혼과 꿈의 색다른 면들을 드러냈다. 그 결과물은 2막까지 연극이 되어 무대에서 호응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소설은 이전 내용 그대로 두었다고 전했다.

"나는 젊은 작가가 쓴 글은 그게 누구든 합부로 고치고 싶지 않다. 특히나 그 젊은 작가가 한때의 나 자신이라면 더욱. 몬태그, 비티, 밀드레드, 파버, 클라리세는 30분마다 10센트씩 넣어가며 처음 썼던 30년 전과 똑같이 일어나고, 움직이고, 등장하고, 퇴장했다."



〈비아북·1만68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설자는, 금성으로 돌아오다

정세랑 지음

환구금성(還歸金城), 통일신라시대 수도 금성으로 귀환한 설자는 펼치는 '액션', '명량', '추리', '미스터리' 활극.

소설을 읽다 보면 간혹은 마음을 다해 좋아하고 싶은 인물들이 있다. 사랑, 공감, 연민으로 인해, 그저 하릴없이 마음이 끌리는 등 이유가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고군분투하면서 목표하는 바를 이뤄가는 주인공'에게는 온 마음을 다 주고 싶다.

정세랑이 만들어 낸 '설자'는 그런 캐릭터로 읽힌다. 통일신라 신문왕 시대, 죽은 오빠 '자은'으로 변장해서 살아가는 남장화소 모티브가 녹아 있어 고된 운명을 살아 간다. 집안을 일으켜야 하는 의무를 짊어지고 귀향하던 배 위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면서 펼쳐지는 서스펜스는 주인공의 혼란 삶에 마음을 기울이게 한다.

독자와 평단의 신뢰를 받고 있는 정세랑이 '설자, 금성으로 돌아오다'로 3년 만에 돌아왔다. 이번 책은 설자는 시리즈의 첫 권으로 앞으로 '설자, 불꽃을 쫓다', '설자, 호랑이 등에 올라타다' 등을 꾸준히 출간한다는 계획. 그동안 '시선으로부터', '보건교사 안은영'으로 약자와 부조리를 해부하던 시도에서 조금 탈각해, 역사소설에서 모티브를 얻었다는 점은 새로운 소설적 세계를 기대하게 만든다.

"다음 여름이 될 때까지 사람들의 마음을 굶은 채로 둘 수는 없었다. 여름 품고는 좋아하는 일도 좋아할 수 없고, 야기는 이도 아낄 수 없다. 처음엔 도전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자은의 염려는 어느새 육부 여자를 전체에게로 번지고 있었다."

소설은 타자에 대한 원한인 '염(炎)'을 품고서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랑도 태어날 수 없음을 이야기한다. 역사소설을 표방하던 전작들에서 정세랑이 천착해 온 주제 의식이 작품 전반에 어떤 기류처럼 흐르고 있는 것 같다.



〈문학동네·1만68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3년 11월호

2023년 10월 31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책 읽는 사람, 책 읽는 도시



- 함께 읽는 책, 감동이 전해진다
- 삶을 깨워주는 온·오프라인 독서모임들
- '책 읽는 사람'이 있는 그림, 책, 영화의 잊지 못할 그 순간

맛과 함께 구례 여행

지리산 길 사찰 향기 짙은 단풍

피아골 | 지리산정원, 지리산 스카이 런, 구례수목원
구름암 모자나무 기둥 | 천은사 '상생의 길'
'창씨교집' 지리산 초피 육포 | '사계양광' 구례의 자연을 담은 맛 빈티지 오디오 카페 '음악이 흐른다'

기획-문터 낮춤 공연장 우리 곁에 클래식

문화는 품은 건축물-이용노의 집
한국적 조형 일군 거장의 담담하고 모던한 집

문화는 품은 건축물-이용노의 집
한국적 조형 일군 거장의 담담하고 모던한 집

에향 초대석

곡성 '정해박해' 다룬 장편 발표 소설가
김탁환
"단인 평등한 세상 꿈꾼 이들의 믿음 그려"

특별기획 - 신진남관광여지도

도시를 바꾼 아트투어리즘②
강원도 원주를 관광도시로 만든
전원형 미술관 뮤지엄산

남도의 섬으로 떠나는 블루투어&ESG 여행

특별기획 - '목포 어디까지 가봤니?'

2023 목포 문화재 야행
"목포 근대로의 시간여행을 떠나자!"

에향이 만난 이 사람
호남의 누정⑤ 광주 만귀정
생의 만년에 돌아와 절경과 풍류를 노래하다

오동진의 '시네마 역사' ⑩
1920년대 '잃어버린 세대' 영화를 보면 역사가 보인다